

여름철 엔高 현상 올해도 나타날까?

뉴욕외환시장에서 8월 3일, 미국의 고용통계가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 엔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으나, 유럽의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엔고 시대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최근 엔화 동향

- 유럽의 채무문제 해결전망이 어두운 상황이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고용통계에서 비농업부분의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개선되어 미국의 경기감속 우려가 줄어들어 달러당 78엔대로 엔저 경향
- 8월 3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전일대비 1달러당 78엔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2주 만의 엔저 기록
-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다우존스 평균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도 크게 상승

□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

- 그러나 향후 엔고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
- 과거 2년간은 여름철이 되면 환율개입이나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할 정도로 엔고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시장전문가들은 금년에도 “여름철 엔고”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음

- ‘여름철 엔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유럽의 재정문제
 - 불투명한 유럽의 재정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고가 지속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
 - 이런 가운데 유럽의 재정불안이 스페인과 이태리까지 확산되었고, 유로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은행(ECB) 총재는 남유럽의 국채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

□ 전문가들의 엔고 전망

- SMBC닛코증권 노지(野地) 환율 이코노미스트
 - “해외 악재도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고용문제, 기업실적이 악화되어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 엔이 1달러당 77엔대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미즈호증권 스즈키 환율 전략가
 - “유럽의 재정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려 유럽경제의 악화문제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되면 유로 가치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각 연구소의 2012년 경제전망치 및 환율전망〉

2012년	실질GDP	환율(1달러=엔 화)
도쿄미쓰비시UFJ은행	2.5%	80.0엔(85.0엔)
노무라 증권	2.2%	79.0엔(82.0엔)
일본종합연구소	2.2%	82.0엔(86.0엔)
일본경제연구센터	1.9%	82.5엔(85.0엔)

*환율()는 13년 전망

- 여름철에 엔고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휴가철이라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여 소규모 매매에도 크게 움직일 경우가 있기 때문

□ 시사점

- 글로벌 경기둔화와 유로 존 재정위기에 따른 리스크 회피 심리 영향으로 엔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향후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관련법안 처리문제로 정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여 혼란에 빠지게 될 경우 엔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참고자료>

일본경제신문(2011.8/5)